

# 폭로·고소·후보교체 '진흙탕 경선'...쇄신·개혁 퇴색

민주당 광주·전남 공천 마무리  
오락가락 잦아 '시스템 공천' 구명  
광산갑 수사로 후보 바뀌기도  
여성후보 한명, 청년은 없어  
광주 8곳중 4곳 386세대 공천

이 가운데 광주 광산갑 선거구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앙당이 경선을 통과한 후보를 바꾸었고,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경선방법 변경을 통한 재경선으로 후보가 뒤바뀌었다. 특히 민주당 '시스템 공천'의 주요 내용 중 경선방법인 권리당원 50%+시민여론조사 50%도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남겼다.

이 과정에서 상대 후보 간 상호비방 등 난타전과 함께 고소·고발 전까지 이뤄지면서 민주당의 '혼탁 경선'을 바라보는 지역 유권자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갔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서 '시스템 공천'을 스스로 무너뜨린 민주당 지도부를 규탄하고, 경선 파행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적쇄신·개혁공천 '0'...새 인물 수혈도 부족=민주당이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공천한 후보들 중 새로운 인물로 꼽히는 후보는 5명 정도다.

광주에서는 동남갑의 운영덕 후보와 북구갑 조오섭 후보 등 2명 정도가 이번 총선에서 처음 얼굴을 내민 정치신인으로 꼽힌다. 나머지 6곳 선거구의 후보들은 대부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적게는 1~2차례, 많게는 3~4차례씩 얼굴을 내밀었거나,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아온 인물이다.

전남지역도 중앙당이 전라공천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의 소병철 전 법무수원장과 여수에서 경선을 통과한 김희재 전 광주지검장, 목포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은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4·13 총선 후보 공천이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일부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재경선·검찰 수사 등으로 공천 후보가 뒤바뀌는 등 온갖 파행을 빚었다. 이로 인해 인적쇄신과 개혁 공천을 포함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기대했던 지역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이번 광주·전남지역 후보 공천에 실망감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상호비방·폭로전으로 얼룩진 경선=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공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 최고위원회가 오락가락 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애초 자격이 의심되는 후보가 경선에 포함되고, 재심 수용 과정도 엇박자를 보였다. 인적 쇄신도 개혁 공천도 없었다. 높은 당 지지율에 '경선이 곧 당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후보들 간 상호비방과 폭로전이 난무하는 등 온갖 추태와 진흙탕 싸움으로 경선은 파행을 빚었고,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7개 선거구에서 재심 신청이 잇따랐다.

### ◆ 광주 총선 대진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무소속
동남갑	운영덕		장병완				
동남을	이병훈		김성환·박주선	최만원			
서구갑	송갑석	주동식	김명진		김주업		
서구를	양항자		천정배				정광선
북구갑	조오섭	범기철		이승남			김경진
북구를	이형석		최경환	황순영	윤민호		김원갑·노남수
광산갑	이용빈		김동철	나경채	정희성		
광산을	민형배		노승일	김용재		이병훈	

### ◆ 전남 총선 대진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목포	김원이	황규원	박지원	윤소하		
여수갑	주철현					이용주
여수을	김희재	심정우				권세도
순천·광양 곡성·구례갑	소병철	천희람	장성배·기도서	강병택	김선동	노관규
순천·광양 곡성·구례을	서동용	김창남		이경자	유현주	안준노·정인화
나주·화순	신정훈	최공재			안주용	
담양·함평 영광·장성	이개호		김연관			김선우
고흥·보성 장흥·강진	김승남		황주홍			김화진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윤영일			
영암·무안·신안	서상석		이윤석			김필봉·임홍빈

장,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의 서동용 변호사 등 4명 정도가 정치 신인으로 꼽힌다.

또한,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에서 공천장을 받은 여성 후보는 단 한 명에 불과했고, 청년 후보는 전무했다. 광주 3곳, 전남 3곳 등 광주·전남 6곳의 선거구에서 여성 후보들이 경선에 나섰지만, 광주 서구를 선거구의 양항자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후보들은 여성 가산점(최고 25%)을 받고도 모두 고배를 마셨다.

◇광주, 386세대 약진...세대교체 이뤄지나=광주 8개 선거구에서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들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4명이 학생 운동을 대표했던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다. 9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제4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역임한 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을 필두로, 동남갑 운영덕, 북구갑 조오섭, 광산갑 이용빈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윤 전 행정관은 조선대 88학번으로 91년 조선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조오섭 후보는 전남대 86학번으로 총학생회 기획총무 부장을 맡아 87년 6월항쟁을 이끌었다. 이 용빈 예비후보는 전남대 의대 재학시절 총학생회 부회장을 지냈다.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인 4곳 선거구에 '86세대'들이 민주당 후보들이 됨에 따라 향후 민주당 광주 정치권력도 86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민생당 광주 5곳·전남 4곳 등 38개 지역구 단수공천 확정

### 갈등 봉합 총선 체제 전환

### 여권 비례연합 불참으로 정리

민생당은 계파 간 다툼을 중단하고 4·15 총선 체제로 전환했다.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문제는 '불참'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는 바른미래, 대한신당, 평화당 등 당내 계파 지도부 간의 나뉘먹기 설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민생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주 5곳, 전남 4곳 등 총 38개 지역구에 대한 4·15 총선 후보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우선 지역구 현역 의원 전원이 있는 호남 지역 12곳에 대해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광주에서는 ▲동남갑 장병완 의원 ▲

서구를 전정배 의원 ▲서구갑 김명진 전 김대중정부 청와대 행정관 ▲북구를 최경환 의원 ▲광산갑 김동철 의원 등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동남을에서는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 박주선 의원과 김성환 전 동구청장의 경선이 거론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오는 26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만큼 조만간 경선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북구 갑의 경우 민생당 측에서 무소속으로 나서고 있는 김경진 의원의 입당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 을은 '최소실 저격수'로 알려진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공천이 유력하다.

전남에서는 ▲목포 박지원 의원 ▲해남·완도·진도 운영일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황주홍 의원 ▲영암·무안·신안 이윤석 전 의원 등이 단수 공천을 받

았다. 전북에서는 정동영(전주병), 조배숙(익산을), 유상엽(정읍·고창), 김광수(전주갑) 의원과 김경민 전북도당위원장(김제·부안) 등이 공천됐다. 민생당은 최소한 호남에서는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는 방침 아래 남은 지역구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생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각종 설이 제기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김정화·박주현 공동대표, 장정숙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비례대표 신청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손학규 전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 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선순위'를 놓고 각 계파가 서로 양해한 것이냐는 말도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정의당 전남 10대 공약 발표...본격 표심잡기

정의당 전남도당은 20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후보들이인 목포 윤소하 후보,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강병택 후보,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이경자

후보, 여수을 김진수 후보, 농어민 비례대표 박용두 후보가 참석했다.

전남도당이 내놓은 주요 공약은 농어민 기본소득 법제화, 후계농업인 육성 특별법 제정, 산업단지 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대학 무상 반값 등록금, 청년의

무고용제 확대,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등이다. 또 노후 한빛 원전 폐쇄, 국립 섬발전 연구 진흥원 유치, 2028 세계 섬엑스포 전남 유치, 국민 재난 기본소득 도입,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남북 대화 복원 및 교류 협력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 후보들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전남을 위해 달려가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